

광주시 도시계획위 '2025 도시·공원계획' 확정

# 신규 주거·상업용지 15년간 개발 안한다

### 공업용지 6.5km² 반영...1인당 공원 면적 2.5배로

광주시가 오는 2025년까지 주거 및 상업용지 개발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구도심 재생을 위해 신규 개발을 정책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15년 동안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던 주거용지 4.5km²와 상업용지 0.3km²도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광주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필요한 공업용지 6.5km²는 '202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회의 열고 '2025 도시기본계획'과 '2025 공원녹지계획'을 심의, 조건부 가결했다.

지난 2004년 수립된 '2020 광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전면 수정한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광주시를 범위로 하는 최상위 수준의 계획으로,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 계획도 잇따라 변경될 예정이다.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면, 앞으로 15년간 광주시는 문화 창조발전도시, 첨단·광산업 허브 도시, 민주인권평화도시, 국제교류중심도시, 저탄소 녹색 청정도시를 5대 목표로 삼고, 2025년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4만 달러, 세계도시 삶의 질 평가 100위 내 진입, 세계도시경쟁력 순위 200위 등의 정책지표를 설정했다.

2025년 추계인구는 2020년과 같은 180만명으로 설정했으며, 총가구는 핵가족화의 심화로 지난해 51만3000가구에서 21만 가구가 늘어난 72만3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105%인 주택보급률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되면서 오는 2025년 119.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물류 측면에서는 국도 13호선을 따라 첨단·하남·진곡·평동·혁신도시 등이 연계되면서 첨단산업물류축이 부상하고 저탄소 녹색교통 정책으로 대중교통분담

률은 기존 59.4%에서 64.2%로,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2.46%에서 6.6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개발 우선순위를 선 기계발전 후 미개발지로 정했으며, 계획의 기초 역시 개발 위주 성장주의에서 성장관리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2025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조건부 가결된 2025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공원녹지면적이 기존 18.94km²에서 28.30km²로 앞으로 15년간 공원녹지 면적은 9.36km²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율은 4.3%에서 6.82%로 1인당 공원조성면적도 4.69㎡에서 12.50㎡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근린공원 21곳, 소공원 19곳, 체육공원 4곳 등이 15년 안에 조성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5기 출범과 시대적인 변화상을 반영해 광주의 미래구상을 변경한 것으로 앞으로 5년 단위로 이를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람회 교통문제 1주일내 해결”

##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여수 방문 “장·차관 회의 열어 인력 지원도 해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세계박람회를 앞둔 여수의 최대 숙원인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관련 사업에 청신호를 켜줬다.

김 대표는 10일 정은천 최고위원, 차명진 국회박람회특위 간사, 최구식·정욱임 의원 등과 함께 여수를 방문

했다. “1주일 안에 장·차관 회의를 통해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박람회 홍보관을 찾아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에게 “박람회 개최 기간 중 교통 대란 해소를 위해 시급한 여수시외버스터미널~박람회장(2.8Km·396억원)

도로 확장과 석창 교차로 입체화(1km·220억원) 사업의 미확보 재원 481억원의 국고 반영이 절실하다”고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장은 “인력 확충이 안돼 조직위원회의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며 행안부에 요청한 정원 18명의 인력 지원문제 해결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까지 11조6000억원을 박람회에 쏟아 부었는데 신경 안쓰는다는 말은 말도 안된다”며 “다음 주까지 관련부처 장·차관회의를 열어 반드시 1주일안에 답을 낼

테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박람회는 현 정부 임기내 치르는 가장 큰 국제행사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예산 지원 등을 빌미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조직위원회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맹목규 행안부 장관을 만나 직접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북한의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조직위원회에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운데)가 여수 석창 사거리에서 김충석 여수시장과 함께 교통 혼잡해결을 위한 입체로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여수시 제공)

김 대표는 이밖에 해외엑스포에 걸맞게 해양전문기업 유치도 절실하며, 대규모 공연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강동석 조직위원장은 “북한에 이미 초청장을 보냈고 최근 세계박람회 총회에서 북한측에 구두로 재확인한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해양 조선 관련 기업도 전시관을 마련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 일행은 앞서 석창 교차로와 시외버스터미널~박람회장 연계 도로 현장을 둘러보고 예로 사항을 청취한 후 김충석 여수시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김창희기자

## 당정, 구제역 매몰지 4200곳 전수조사

## 北도 구제역 발생 FAO에 긴급구호 요청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구제역 매몰처분에 따른 침출수 유출 등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소·돼지 집단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구제역 후속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은 또 구제역 확산방지에 대한 보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화생방 부대 내 '기동방역단'을 설치, 향후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할 경우

민·관·군 공동방역단을 신속히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역원 등 농업수산물식품부 산하 검역기관들의 통합에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통합방법과 대장기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석호 의원은 구제역 침출수 문제와 관련, “전국의 매몰지 약 42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중 45곳이 부실로 드러났다”면서 “현재 매뉴얼대로 하면 침출수 피해 해결이 어려워 고온멸균 처리방식이 대안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북한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알리고 긴급 구호를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했다.

유엔 관계자는 이 방송에 “북한 농업성이 9일(현지시간) 외교 서한을 통해 FAO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전격 통보하고 긴급 구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나 감염된 소와 돼지의 수 등 구체적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10일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 사실을 전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여수공항~포항공항 경비행기 이달 취항

### 19인승 24일부터 운항

여수공항과 경북 포항공항을 오가는 서벌에어(경비행기)가 이달부터 취항한다.

10일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에 따르면 국내 민간항공업체인 서벌에어와 서벌에어항공이 오는 24일부터 19인승 소형항공기로 포항~여수 노선을 운항한다. 취항 항공기는 체코제 터보프롭

(제트) 쌍발 항공기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시험운항을 마쳤으며 16일까지 점검비행을 한 후 국토해양부로부터 정식 운항허가를 받아 취항할 예정이다.

운항은 포항~여수간을 1일 3왕복으로 포항에서 오전 8시30분, 오후 2시10분, 오후 4시50분 출발하고 여수에서 오전 9시50분, 오후 3시30분, 오후 6시10분에 각각 출발해 40여분만에 주파하게 된다.

요금은 편도 7만8천원(부가세, 공항세, 유류할증료 별도)이다.

에버그린에어 측은 포항공항에 운항, 정비, 지상조업, 마케팅 등 업무 시스템을 갖추고 본격 취항을 준비중이며 이용 승객은 'www.evergreenair.co.kr'에서 예약 전자발권을 할 수 있다. 이용객이 많은 경우 1일 5왕복까지 운항횟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수박람회 기념주화 발행

## 내달 23일까지 대행사 모집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념주화가 발행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 기념주화를 발행키로 하고 판매대행사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내달 8일 열리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해야 하고, 같은 달 23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제안서를 조직위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박람회 홈페이지(www.expo2012.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성 조직위 브랜드마케팅과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념주화는 국내에서 발행된 역대 기념주화보다 특색있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소량만 발행해 소장가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문화탐방**  
영양보충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 **“광주 문화탐방”** 을 치십시오.

# 방콕·앙콘르왓

## 무안 ↔ 방콕 직항 전세기

2011. 2. 17 ~ 3. 31 (총 12회)

**관광**

799,000  
부터~

**캠보디아 육로**

899,000  
부터~

**골프**

1,049,000  
부터~

**허니문 5일** 초특급호텔·럭셔리호텔

**1,349,000원**

● 포함 사항: ▲ 일정에 따른 현지 호텔비(2인1실), 식사비, 입장료, 현지공항세 ● 불포함 사항: ● 기사/가이드 팀 전 일정 US\$30~40/인 별도  
● 국제선항공료, 무안 출/공역서, 전정보험료, 1인당 여행자보험 ● 유류할증료 68,000원 (상인/아동 동일)  
● 알카자소 및 전통안마 2시간 1회 포함 ● 캄보디아 육로 비자 비용 별도 \$53/인 - 사전에 지정요  
● 특식 (태국식-사트사트, 수끼, 호텔내부드, 한식-삼겹살) ● 골프장부대경비 - 골프장에 따라 캐디비, 전정카드, 캐디비

**크리스탈타이항공 · 광주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양국정부인가조건) © 랜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71-31

**목요일 (3박 4일) 출발**

2월 17, 24일 / 3월 3, 10, 17, 24일

**일요일 (3박 5일) 출발**

2월 20, 27일 / 3월 6, 13, 20, 27일

**관광**

799,000  
부터~

**캠보디아 육로**

899,000  
부터~

**골프**

1,049,000  
부터~

**허니문 5일** 초특급호텔·럭셔리호텔

**1,349,000원**

● 포함 사항: ▲ 일정에 따른 현지 호텔비(2인1실), 식사비, 입장료, 현지공항세 ● 불포함 사항: ● 기사/가이드 팀 전 일정 US\$30~40/인 별도  
● 국제선항공료, 무안 출/공역서, 전정보험료, 1인당 여행자보험 ● 유류할증료 68,000원 (상인/아동 동일)  
● 알카자소 및 전통안마 2시간 1회 포함 ● 캄보디아 육로 비자 비용 별도 \$53/인 - 사전에 지정요  
● 특식 (태국식-사트사트, 수끼, 호텔내부드, 한식-삼겹살) ● 골프장부대경비 - 골프장에 따라 캐디비, 전정카드, 캐디비

**크리스탈타이항공 · 광주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